

관세청, 2026년 상반기 마약류 총 767건, 1,007kg 적발

- 국내 유입 목적의 마약밀수 역대 최대 적발, 대마 > 필로폰 > 케타민 順
- 관세청장 「마약밀수 척결 대응본부 회의」 개최, 여행자의 신변·휴대품·기탁 수하물에 대한 촘촘한 3차 감시단속망 신속 구축 지시

- 관세청은 '26. 7. 22.(수) 인천공항세관에서 이종욱 관세청장 주재로 「마약밀수 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26년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이 날 회의에서는 '26년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현황 및 분석결과를 점검하고 모든 마약 밀반입 경로에 대한 N차 마약밀수 감시단속망을 신속히 구축하도록 지시하였다.
- 특히, 최근 마약 밀반입이 집중되고 있는 여행자 경로에 대응하여 여행자 신변과 휴대품(Landing125* - 입국심사 직후 불시검사 - 세관검사대), 기탁 수하물(100% X-ray 검사 - 복수판독** - 세관검사대)에 대한 3차 검사 체계를 중심으로 여행자 경로의 N차 마약밀수 감시단속망 재설계 방안을 논의하였다.
- * 입국심사전 착륙 즉시 일제검사 // ** 우범항공편 화물을 복수 판독자가 교차 확인
- 회의 이후에는 실제 마약전담 검사대 현장을 찾아 마약검사를 직접 시연해 보는 등 여행자 분야 마약 밀반입 대응 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 오늘 발표한 '26년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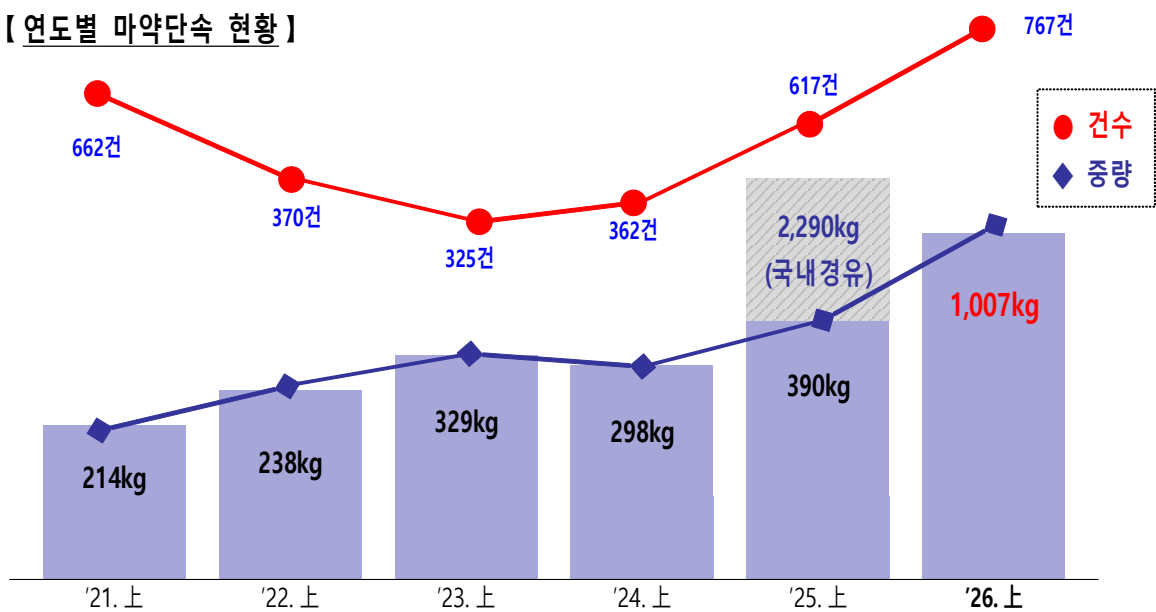
1. '26년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

- (총괄) 관세청은 '26년 상반기에 국경단계에서 총 767건, 1,007kg*의 마약을 적발했다. 이는 약 3,358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 * '25년 상반기 대비 적발 건수 24% ↑, 중량 62% ↓ // ** 필로폰 1회 투약량 0.03g 적용

○ 이는 국내 유입 목적*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의 성과이다.

* '25년 상반기 적발실적에는 목적지가 타국인 우리나라 단순 경유 적발건(4월 옥계항 1,690kg, 부산신항 5월 600kg) 포함

【연도별 마약단속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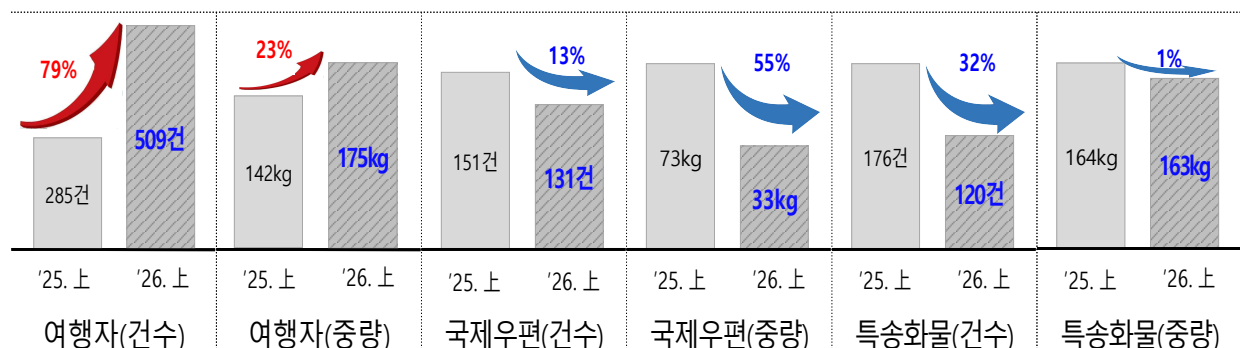


□ (밀수경로) 적발 건수는 여행자 > 국제우편 > 특송화물 > 기타 順, 중량은 일반 수입* > 여행자 > 특송화물 > 국제우편 順으로 많이 적발됐다.

* 인천항 컨테이너 화물에서 대마초 636kg 적발(3월) 포함

○ 여행자의 적발건수와 중량은 모두 증가한 반면, 국제우편의 건수와 중량은 모두 큰 폭 감소했다. 특송화물은 건수는 감소했으나 중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 이 중 국제우편은 지난 12월 동서울 우편집중국을 시작으로 5개 우편집중국으로 확대된 2차 저지선이 본격 가동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 일반 수입화물은 인천항 컨테이너 화물에서 대형 밀수 사건 적발로, 지난 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도 중량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종류별) 건수와 중량 모두 대마 > 필로폰 > 케타민 > 코카인 順이다.

- 대마는 인천항 컨테이너 화물에서 대형 밀수(636kg, 3월) 적발로 중량이 크게 증가했고, 그동안 높은 비중을 차지해 온 필로폰의 건수는 감소, 중량은 증가했다. 전년도 연이은 대형밀수 적발로 비중 1위였던 코카인은 적발건수와 중량이 모두 크게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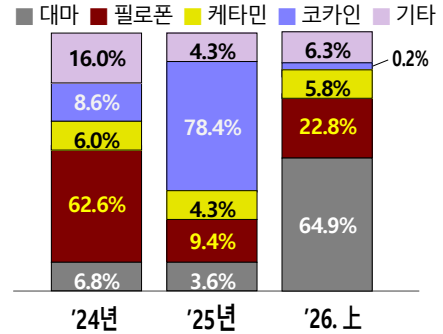
【마약 종류별 단속 현황】

(단위: 건, kg)

구 분	'24년		'25년		'26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대 마	221	53	338	118	288	654	77	908
필로폰	153	493	114	313	60	230	△12	51
케타민	64	47	70	144	26	58	△21	△32
코카인	7	68	10	2,602	2	2	△71	△99
기 타	597	126	926	141	507	63	12	△16
합 계*	1,042	787	1,458	3,318	883	1,007	22	△62

* 1사건 적발품목이 2개 이상 사건이 있어 총괄 현황 적발건수와 일부 상이

【마약 종류별 단속 비중(중량 기준)】



□ (마약출발국) 대륙 기준 아시아 > 북미 > 유럽 > 아프리카 > 중남미 順, 국가 기준 태국 > 영국 > 캐나다 > 베트남 順으로 적발량이 많았다.

- 지난 해 중남미발 대형밀수 사건의 영향으로 2위였던 아시아는 올해 태국발 적발 증가 등에 힘입어 다시 대륙 기준으로 1위를 차지했고, 태국은 '23년 이후 지속적으로 최대 적발 국가를 기록하였다.
- 영국은 항공여행자의 케타민 42kg 적발(5월)로 중량이 급증하여 2위를 차지했고, 베트남은 야마 24kg이 특송화물에서 적발되는(1·2월) 등의 영향으로 미국을 추월하여 4위를 차지했다.

【마약 출발 대륙별 단속 현황】

(단위: 건, kg)

구 분	'24년		'25년		'26년 상반기		전년동기 대비(%)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아시아	485	472	622	289	349	870	8	419
북미	205	163	441	220	316	62	48	△44
유럽	149	84	147	167	71	56	4	△41
아프리카	6	15	5	22	10	14	233	103
중남미	7	35	14	2,605	4	5	△56	△99
기타	24	17	42	15	20	0	150	△81
합계*	876	787	1,271	3,318	770	1,007	24	△62

* 1사건에 출발국·대륙이 2개 이상인 사건이 있어 총괄 현황 적발건수와 일부 상이

【마약 출발국별 단속 현황】

(단위: 건, kg)

구 분	'24년		'25년		'26년 상반기		전년동기 대비(%)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태국	138	359	118	152	85	778	31	854
영국	25	15	31	45	17	43	21	212
캐나다	24	43	32	88	44	34	267	19
베트남	142	25	151	39	74	32	△17	51
미국	181	120	409	131	272	28	35	△66
일본	20	2	69	14	36	19	50	484
기타	351	223	468	2,849	246	73	10	△97
합계	881	787	1,278	3,318	774	1,007	23	△62

2. '26년 상반기 마약밀수 특징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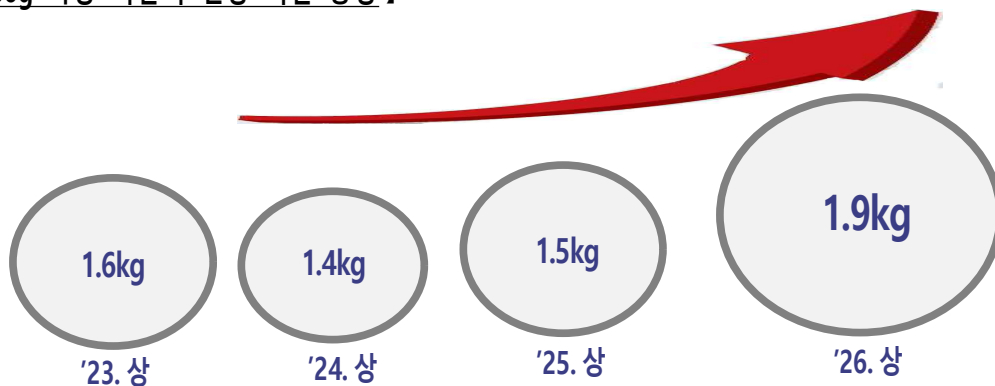
① 마약밀수 증가·대형화 추세로 국내 유입 목적 역대 최대 적발

□ '25년 역대 최대 단속 성과에 이어, '26년 상반기도 국내 유입 목적의 마약류 적발로는 역대 최고치의 실적이다.

○ 아울러, 국내 유통 목적으로 추정되는 100g 이상 마약밀수의 건당 적발 중량*이 1.9kg에 달하는 등 국경단계에서 적발되는 마약의 증가·대형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 '25년 상반기 대형 적발 코카인 2건(1,690kg, 600kg) 및 '26. 3월 적발 대마 636kg 제외

【 100g 이상 적발의 건당 적발 중량 】



② 항공여행자 마약밀수 급증, 지방공항 우회 밀반입 시도 확대

□ '25년도에 이어 항공여행자의 마약밀수가 전년동기대비 건수 79%, 중량 23% 상당 모두 크게 증가했다.

○ 이는 여행객의 증가*와 맞물려,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에 대한 세관의 100% X-ray 검사 등 강화된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여행자 경로로 마약밀수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23) 3,194만명 → ('24) 4,295만명 → ('25) 4,646만명 → ('26. 上) 2,493만명(전년동기대비 10.7%↑)

□ 이와 함께, 지방공항으로 우회 밀반입 시도도 확대되고 있다.

- 인천공항 중심의 단속이 강화되자, 일부 마약밀수 조직은 상대적으로 단속을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방공항으로 밀반입 시도를 다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25년에는 김해·김포·제주에서, 올 상반기에는 대구·청주 공항에서 적발이 증가하는 등, 특정 공항 단속이 강화되면 다른 지방공항으로 우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지방공항 마약밀수 적발 현황 】

(단위: 건,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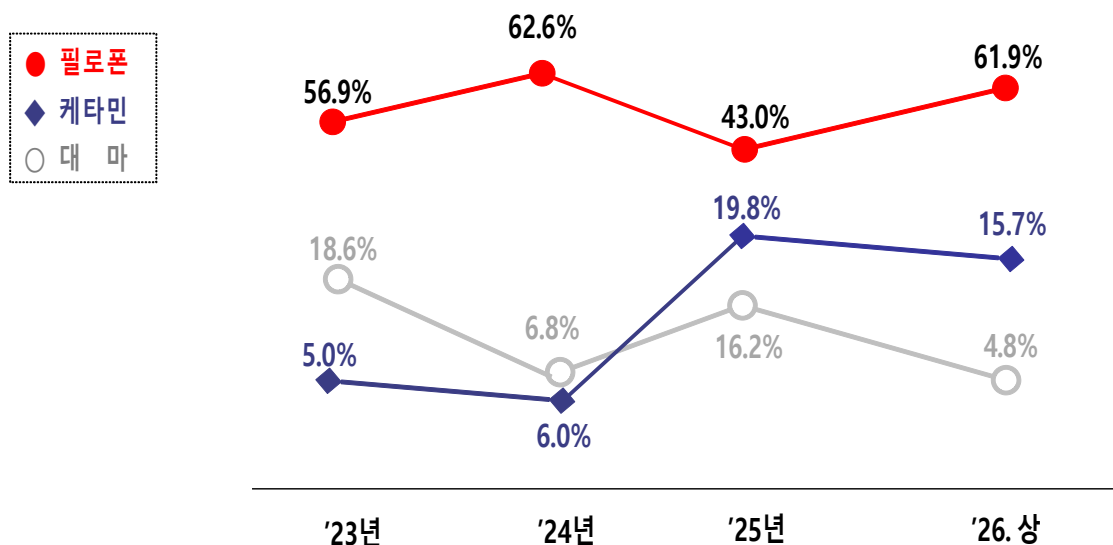
구 분	'24년		'25년		'26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김해공항	16	19,260	23	46,068	10	5,837	△58%
김포공항	7	864	5	24,367	4	455	△98%
제주공항	2	131	7	15,978	1	1	△99%
대구공항	3	1,023	1	313	3	42,468	13,468%
청주공항	4	5,918	-	-	1	1	순증
합 계	32	27,196	36	86,726	19	48,762	

* 인천공항 490건, 125,973g ('26년 상반기)

③ 필로폰·대마 등 전통적 품목의 밀수가 여전한 가운데, 케타민, 에토미데이트 등 신종 합성마약 급부상

- 대표적인 클럽마약인 케타민은 대형 적발건을 제외*하면, '25년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필로폰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25년 대형 적발 코카인 3건(1,690kg, 600kg, 300kg) 및 '26.3월 적발 대마 636kg



- 케타민은 동물 마취제로 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클럽 등지에서 오남용되기 시작하며 국제적으로도 확산 추세에 있고, 최근 제주 해안가에서 차(茶)봉지로 포장되어 연이어 발견되는 등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으며,
- 관세청은 국경단계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케타민의 주요 출발국인 유럽발 여행자·화물에 대한 위험 분석과 선별·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 올해 2월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에토미데이트는 태국·캄보디아·인도발 국제우편 등에서 총 7건, 4.3kg이 적발됐다.

*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대표적으로 덱스트로메토르판, 졸피뎀, 프로포폴 등이 해당

-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 유도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나, 태국·싱가포르 등지에서 액상 전자담배에 섞어 좀비담배 형태로 유행하고 있어 관세청은 해당 국가발 우범여행자 등 검사를 강화해 왔다.

④ 마약밀수 사범이 청년층뿐 아니라 청소년층으로도 확대

□ 30대 이하 마약밀수 사범 비율이 전체 마약밀수 사범수의 59.3%(중량 65.4%)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분포대를 형성하고 있다.

- 이 중 10대 마약밀수 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에 달하면서 마약밀수 문제*가 청년층을 넘어 청소년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전체 마약사범 중 10대 비중은 2.9% 수준(대검 마약류 월간동향, '25.12월)

【연령대별 마약밀수 사범 현황】

(단위: 명, g, %)

연령대	'23년 상반기			'24년 상반기			'25년 상반기			'26년 상반기		
	사범수	중량	비중	사범수	중량	비중	사범수	중량	비중	사범수	중량	비중
10대	2	519	61.3	1	20	66.6	1	310	50.6	14	2,387	59.3
20대	98	111,376		92	48,372		126	140,137		176	90,397	
30대	103	176,826		120	74,011		163	68,366		235	71,886	
40대	69	103,961	20.8	58	34,169	18.1	110	77,744	19.2	131	19,363	18.3
50대	37	37,926	11.2	29	39,079	9.1	79	26,554	13.8	69	15,738	9.6
60대 이상	22	22,432	6.7	20	8,896	6.2	94	41,787	16.4	92	51,993	12.8
합계	331	453,040	100	320	204,547	100	573	354,898	100	717	251,764	100

※ 1사건에 피의자가 2명 이상인 사건이 있어 총괄 현황 적발중량과 상이, 불상 피의자는 통계 제외

⑤ 우범정보 입수 및 자체 정보분석의 중요성 확대

- 관세청은 마약사범 정보 등 마약 우범정보 입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우범 여행자·화물의 정보분석과 선별·검사를 강화하여 자체 적발 비중이 93.1%(외부정보는 6.9%)를 차지하고 있다.

* (기존 법무부·외교부·대검·과기부 마약사범 → (추가) 국방부 군 마약사범, 식약처 마약류 과다처방자

- 이 중 정보분석을 통한 선별·검사 적발 비중이 전체 대비 33.9%를, X-ray 검사가 56.3%를 차지하는 등 자체 적발 역량을 바탕으로 국경 단계에서 빈틈없이 마약 밀반입을 단속하고 있다.
- 앞으로도 관세청은 외국세관의 마약 적발기법과 단속사례를 체계적으로 입수·분석하고 자체 적발로 확보한 운송경로, 은닉수법, 수취패턴 등은 유사 수법의 밀반입 조기 탐지에 활용하는 한편, 마약 공급망을 추적하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할 예정이다.

3. 향후 계획

- 관세청은 주요 5대 마약 반입경로* 중 국제우편과 일반 수입화물에 N차 저지선을 구축한 데 이어 나머지 반입경로에 대해서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N차 검사체계를 신속히 구비하여 마약 차단을 최우선으로 하는 두텁고 촘촘한 마약 감시망을 속도감 있게 구축할 계획이다.

* (구축 완료)①국제우편, ②일반 수입화물, (추진중)③여행자, ④특송화물, ⑤선박·선원·항만출입자

- 특히, 최근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여행자 경로는 올 하반기 여행자 신변과 휴대품, 기탁 수하물에 대해 첨단 검사장비*도 활용하여 조그만 허점도 허용하지 않는 빈틈없는 마약 감시망 체계를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 (이온스캐너) '25년 101대 → '26년 +4 105대 // (라만분광기) '25년 23대 → '26년 +5 28대 //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25년 18대 → '26년 +15 33대

-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마약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마약밀수 차단은 관세청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며,

- “여행자 분야를 포함한 모든 밀반입 경로에 대한 N차 저지선 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과 “마약 밀반입 시도는 국경단계에서 반드시 적발된다는 확고한 경각심을 심어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 아울러 마약 단속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현장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이달의 마약 단속왕” 제도를 신설하고, 8월부터 전국 세관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들에게도 “해외에서 지인이나 낯선 사람의 부탁으로 가방이나 물품을 대신 운반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마약밀수에 연루될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마약밀수 근절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붙임 1. 2026년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통계
2. 2026년 상반기 주요 적발사례

담당 부서	관세청 국제조사과	책임자	과 장	이나애 (042-481-7740)
		담당자	사무관	박지원 (042-481-7702)

붙임 1

2026년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통계

1. 연도별 마약류 단속현황

(단위: 건, g)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 6월 누계		전년동기대비 증감(%)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총 괄	771	624,451	704	769,363	862	787,199	1,256	3,317,705	767	1,007,261	24	△62

2. 밀수경로별 단속현황

(단위: 건, g)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 6월 누계		전년동기대비 증감(%)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항공여행자	112	36,155	177	148,099	198	139,687	623	279,455	509	174,734	79	23
해상여행자	0	0	0	0	1	81	1	106	0	0	△100	△100
국제우편	460	361,286	329	327,307	420	189,930	318	156,813	131	32,618	△13	△55
특송화물	197	225,776	193	274,681	235	391,774	306	273,479	120	163,577	△32	△1
기타*	2	1,234	5	19,276	8	65,727	8	2,607,852	7	636,332	40	△72
합계	771	624,451	704	769,363	862	787,199	1,256	3,317,705	767	1,007,261	24	△62

* 수출입화물, 무역선, 공(空)컨테이너, 선원, 반입경로 미상 등

3. 품목별 단속현황

(단위: 건, g)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 6월 누계		전년동기대비 증감(%)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필로폰	120	261,888	155	437,662	153	492,533	114	312,766	60	229,734	△12	51
코카인	8	152	17	11,343	7	67,600	10	2,602,489	2	2,009	△71	△99
헤로인	1	5	2	1,362	0	0	0	0	1	8	순증	순증
대마	284	93,093	212	143,442	221	53,481	338	117,748	288	653,930	77	908
신종마약*	480	266,758	430	171,621	515	167,495	752	269,839	429	98,258	18	△36
기타**	12	2,555	39	3,933	146	6,090	244	14,863	103	23,322	△16	189
합계***	905	624,451	855	769,363	1,042	787,199	1,458	3,317,705	883	1,007,261	22	△62

* (신종마약) 필로폰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마약류를 통계상 신종마약류로 관리

** (기타) 코데인, 모르핀, 옥시코돈, 히드로코돈, 디페녹실레이트 등

*** 1사건에 적발품목이 2개 이상인 사건이 있으므로 총괄 현황 적발건수와 일부 상이

붙임 2 2026년 상반기 주요 적발사례

[사례 1] 항공여행자, 속옷 및 파우치 내부에서 케타민 701g 적발

라오스발 항공여행자,
속옷 내부와 파우치
내부에 은닉한
케타민 701g 적발

┃ '26. 3월 / 인천공항세관



[사례 2] 항공여행자, 백팩 내부에서 필로폰 5kg 적발

캄보디아발 항공여행자,
호일로 감싼 후
백팩 등받이에 은닉한
필로폰 5kg 적발

┃ '26. 3월 / 김해공항세관



[사례 3] 특송화물, 과자류 내부에서 필로폰 4.9kg 적발

태국발 특송화물 이용,
완제품 과자류(스낵, 초콜릿 등)
내부에 은닉한
필로폰 4.9kg 적발

┃ '26. 2월 / 인천공항세관



[사례 4] 특송화물, 자동차 연마제통 내부에서 케타민 1.2kg 적발

폴란드발 특송화물 이용,
액상형태로 자동차
연마제통 내부에 넣은
케타민 1.2kg 적발

┃ '26. 4월 / 인천공항세관



[사례 5] 국제우편, 아기침대 프레임 내부에서 케타민 2.3kg 적발

독일발 국제우편 이용,
아기침대 프레임 내부에
은닉된 케타민 2.3kg 적발
I '26.1월 / 인천공항세관



[사례 6] 국제우편, 형광펜 내부에서 케타민 568g 적발

독일발 국제우편 이용,
형광펜 내부에
은박지로 감싼
케타민 568g 적발
I '26.3월 / 인천공항세관



[사례 7] 국제우편, 라면 봉지 내부에서 대마초 726g 적발

태국발 국제우편 이용,
진공 포장 후 라면 봉지
내부에 넣어 정상제품으로
위장한 대마초 726g 적발
I '26.4월 / 인천공항세관



[사례 8] 해상화물, 의류 박스 내부에서 대마초 636kg 적발

태국발 해상화물 이용,
비닐백에 진공포장 후
정상 의류로 위장(커튼치기
수법)한 대마초 636kg 적발
I '26.3월 / 인천세관

